

“전국제일 종무원으로”

태고종 전북종무원 시무식

태고종 전북종무원이 새해 시무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1월 2일 영산작법 보존회 전수관 3층 큰법당에서 2018년 시무식을 봉행했다.〈사진〉 시무식은 부원장 송월 스님, 영산작법보존회장 혜정 스님, 총무국장 송운 스님을 비롯한 종무직 스님들이 참석했다.

진성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전북종무원이 전국제일의 종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다가오는 세계잼버리대회 성공기원 법회 등 올해 추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전 종도들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시무식을 마친 대중들은 인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정권모 동장에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자비의 400㎏을 전달했다.

한편, 태고종 전북종무원은 올해부터 월 2회 35사단 전주대대 장병들을 위해 법회를 개설할 예정이다. 매월 1·3주 토요일에 전북종무원 보문사에서 명상과 심리치유, 참 나를 찾는 법등 다양한 주제로 장병들을 위한 법회도 봉행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복지 불국토 위해 ‘삼광사’ 나선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부산서구노인복지관 운영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해
‘연화마을’로 불국토 기반
보살행 실천 할 도량으로
“불교복지, 깨우침의 방편”

하성미 기자 jayanti@hyunbul.com

삼광사가 행복한 복지로 여는 불국토를 발원하며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관 운영을 시작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지부장 세운)는 1월 1일부터 부산서구노인복지관 위탁 운영을 시작해 관심을 받고 있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지난해 9월 1일 삼광사에서 사무실 개소식 후 복지사업을 널리 펼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새롭게 위탁 운영하는 부산서구노인복지관은 서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던 곳으로 지난해 11월 민간 위탁으로 변경 공모했다. 심사를 거쳐 운영기관으로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가 선정됐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5년간 운영을 맡는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천태종복지재단 산하 28개 기관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 받아 뛰어난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삼광사가 주체적으로 진행한 나눔 사업을 기반으로 후원처가 이미 개발돼 있어 높은 재정 건전성도 자랑한다.

삼광자 주지 세운 스님은 “그동안 삼광사 나눔 활동을 살펴보면 복지활동에 앞장서 온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이번 복지관 위탁운영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의지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삶의 질을 높이는 전문 복지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독거 어르신을 위한 연화마을을 운영한다. 연화마을은 1~100번지까지 가구를 선정하고 독거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10가구를 단위로 정해 운영하는 공동체 마을이다. 공동체 마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가구에는 전문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유대의식을 강화해 아름다운 지역마을을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장려한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가 지난 9월 1일 삼광사에서 사무실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한 모습.

이외에 해피프렌드 사업으로 은둔형 어르신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자살 위험이 높은 우울성 노인을 위한 케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해피프렌드는 ‘노인이 노인이 돌보는 프로그램’으로 내적 안정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 행복한 조부모 교실로 어르신 교육에도 앞장선다. 행복한 조부모 교실은 손자녀 케어를 하는 어르신들이 현대 교육 및 프로그램을 인지하고 더 나은 보살핌으로 소통의 벽을 없앤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운 스님은 “연화마을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어르신을 돌아보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는 측면과 조직 구성 체계화를 통해 지속적인 복지를 일군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서로를 돌아보는 보살행이 불국토의 기반이 되어 지역 사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돕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연화마을이 확대되면 그 파급력은 엄청날 것이라 생각한다. 포교는 기본으로 성취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광사는 연화마을 공동체 사업에 신도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해 보살행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내고 어르신을 이해하도록 돕는 보살 도량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세운 스님은 “불교복지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깨친 삶을 통한 참된 행복으로 이끌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리이타의 삶이 불교복지다. 삼광사의 새로운 불교복지 출발에 함께 해 달라”고 관심을 독려했다.

한편,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는 노인복지관을 시작으로 다문화센터, 사회복지기관 노인요양 복지시설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복지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삼광사가 위치한 부산진구 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도 앞장선다. 천태종복지재단 부산지부 위탁 운영을 발표하는 선포식은 오는 4월 23로 예정됐다.

제10회 東明대상 선정

이효건 ㈜디알액시온 회장 등

동명대(총장 정홍섭)는 제10회 동명대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수상자는 △산업부문-이효건(74) ㈜디알액시온 회장 △문화부문-성재영(72) 부산시문화원연합회장과 (사)부산교육연구소, △봉사부문-윤종경(62) 윤내과의원 병원장이 선정됐으며, 1월 10일 부산상공회의소 2층 상의홀서 시상식이 열린다. 상금은 분야별 1000만원(공동수상 문화부문 각 500만원).

동명대상은 산업화시대 수출과 경제발전을 주도한 옛 동명목재 故 ‘동명’ 강석진 회장의 정신을 21세기에 맞게 되살려 기념하는 상이다. 강석진 회장은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의 설립자이자 부산불교신도회 창립에 기여한 불자다.

하성미 기자



성관 스님 16주기 추모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을 올린 뒤 참배하고 있다.

“공부하다 죽어라” 성관 스님 추모재

합천 해인사서… 문도대표 등 500여 대중 참석

조계종 제10대 종정을 지낸 혜암당 성관 스님의 16주기 추모재가 1월 3일 합천 해인사서 열렸다. 이날 추모재에는 방장 원각 스님을 비롯해 주지 향적 스님, 도성 스님, 세민 스님, 산중 원로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성관 스님은 1920년 3월 22일 출생해 14세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17세 일본으로 유학해 동양철학을 공부하던 중 조사어록을 보고 출가를 결심했다. 1946년 해인사에 입산해 인곡 스님을 은사로, 효봉 스님을 계사로 계를 받고 1967년부터 해인사 소임을 살았다.

스님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에게 수행정진의 말을 남기기도 했다. 해인사 주지, 종단 원로의원, 원로회의장을 역임했으며 해인총림 6대 방장과 조계종 제10대 종정에 추대됐다. 법랍 56세, 세수 82세로 지난 2001년 12월 31일 해인사 원당암 미소굴에서 “인과가 역연하니, 오로지 목숨을 걸고 참선수행 잘하라”는 당부를 남기고 입적했다.

한편 추모재에 앞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은 혜암문도회장 성법 스님, 무영 스님, 무상 스님 등 대중스님들과 원당암 미소굴을 참배하고 비림 부도탑전에서 육법공양을 올렸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도 부산의 禪문화 중심 공간으로”

범어사 선문화교육관 상량식



선찰대본산 범어사의 선문화 중심지가 될 선문화교육관 완공이 다가오고 있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1월 4일 범어사 아래 상마을에 위치한 선문화교육관 불사 현장에서 상량식을 개최했다.〈사진〉 선문화교육관은 지난해 2월 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10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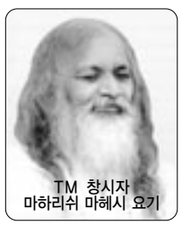
상량식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을 비롯해 영주암 회주 정관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모여 원만 불사를 발원하고, 선문화 도량으로 성장하길 기원했다.

주지 경선 스님은 “그동안 부산에 많은 불교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심 공간이 될 곳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사부대중의 오랜 숙원이 곧 이뤄진다”면서 “선문화교육관은 선문화를 외국인과 일반인에게 알리는 공간이 될 것이며 신행단체의 수행 공간, 스님들의 공부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 불교의 중흥지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바람도 덧붙였다.

원로의원 정관 스님은 “먼저 상량식을 축하드린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편리함이 발전될 뿐 삶의 안식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며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마음의 건강을 위해선 안식이 필요하다. 안식자가 많이 배출되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선문화교육관은 부산 금정구 청룡동 480번지 일원인 사자암에 위치한다. 교육관은 선문화불교관과 선문화체험관 총 2동으로 건립되며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다. 총 높이 13.55m인 저층구조로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전통 한옥형이다. 선문화교육관은 2014년 12월 전통문화사업체험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됐다. 대지 면적은 5315㎡이며, 건축면적은 1832.58㎡, 총 연면적은 2981.27㎡에 이른다.

하성미 기자



TM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요기

가장 쉽고 빠른 힐링! 깨달음!
고혈압 • 심장병 • 우울증
불면 • 스트레스 해소
KBS(마음,생로병사의 비밀),CNN,TIME지 등에 소개

초월명상(TM) 강연회

오프라 윈프리는 왜 TM을 선택했나?
“초월명상을 하면 저는 10배나 좋아집니다.”
(미국 최고 여성부호, 방송인)
【 하버드 대학, 일본 노동성 등 세계 200여 연구소가 입증한 효과 】
수면보다 2배 깊은 휴식 / 불안, PTSD, 강박증 해소 / 지능, 이해력, 집중력 증가 / 대인관계 개선 / 흡연, 음주, 분노, 습관 개선
두뇌개발, 창의력 증가 / 당뇨, 비만 등 신진대사 증후군 개선
암 사망률 50%, 심장병 사망률 30% 감소 / 삼매경 체험 / 깨달음
“초월명상의 마지막 순간은 평정심과 강렬한 의지가 함께 폭발하는 극적인 깨달음의 순간이다”
– 뇌과학자 박문호, 과학의 시대 – 명상의 미래

소개강연 초대

대구 때 : 1월 13일 (토) 3시 pm
곳 : 아이원 스타디 (대구 중앙로역 12번출구 옆, 미도빌딩 12층)
서울 때 : 1월 20일 (토) 2시 30분 pm
곳 : 한국초월명상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1백미터, 수협건물 11층)

문자 예약 : 010-7504-1299 www.초월명상.kr

▶ 미국 심장협회가 유일한 뇌졸증 치유 명상법으로 권장!
▶ 일본 150여 기업 등 세계 유수 기업들 도입!
▶ 세계 1천여 학교에서 시행, 브라질 전 국립학교에 도입!

2018년 실전 사주 명리학
무료강의 제10기 수강생 모집

그동안 제1기에서 제9기까지 전국에서
1,000여분의 스님이 수료하셨습니다.
2018년에도 스님과
불심 깊은 불자들에게 무료로
명리학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대 상
1) 현재 사찰을 운영하고 계시는 스님이나 총무보살
2) 불심 깊은 불자님들

◆수강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하시면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①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 ~ 9월 18일까지
② 수 강 료 : 약 7개월 교육 전기간 강의료 무료
③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오후 4시 (3시간)
④ 개강일자 : 2018년 3월 13일(화요일) 오후 1시
⑤ 책 자 : 초급에서 고급비법까지 총 8권 (책자대금 : 20만원 준비)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